



◆ 독일 KfW, 2001년 승인실적 전년대비 소폭 증가

독일 부흥금융금고(KfW)는 2001년중 승인실적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366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KfW는 세계경제 침체 및 독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실적을 시현하였으며, 2002년중 독일 경제의 회복과 실업률 감소를 위하여 국내 산업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국내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부문에 전년 대비 19억 유로 증가한 254억 유로를 지원하였는데, 이 중 주택 및 중소기업앞 지원금액이 172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프라 및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문이 각각 28억 유로와 35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수출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감소한 84억 유로를 기록했는데, 독일 및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지난해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투자계획의 포기 및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도국 지원실적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28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이 중 IMF앞 특별융자 14억 유로를 제외한 순수 개도국 지원 규모는 14억 유로로서, 지역별로는 對아시아 지원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부문별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44%가 지원되었다.

한편, KfW의 2001년말 현재 총자산 규모는 2,460억 유로, 총당금 설정전 영업이익은 10억 유로로서 전년보다 약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크푸르트사무소】

KfW의 부문별 지원실적

단위 : 십억 유로

구 분	2000년	2001년
국내산업 지원	34.7	33.8
투자금융	23.5	25.4
중소기업	7.5	8.2
주 택	5.1	9.0
인 프 라	2.8	2.8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스	4.9	3.5
기 타	3.2	1.9
수출금융 · 프로젝트 파이낸스	11.2	8.4
개도국 지원	1.5	2.8
ODA 등	1.0	1.4
對IMF 특별융자	0.5	1.4
계	36.2	36.6